

JP아카이브 세 번째 기획-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에서의 김종필 전 총리의 역할과 의미 되새기는 계기”

운정재단이 발기할 때 당초 명칭은 “운정문화재단”이었습니다.

재단의 설립목적은 “운정 선생의 공적 사료들을 수집 정리해 일반에게 제공하고 후학들의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줌으로써, 현대사의 올바른 정립과 건전한 역사관의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운정 선생을 빼고는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현대사를 만드시고 역사의 현장에서 중심에 계셨던 증인이십니다.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기록은 ‘문화’ 분야에서의 그의 활약입니다. 경쟁적 위치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도 넘보거나 견줄 수 없었던 운정 선생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라 할 수 있습니다.

금년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정책 형성과정과 김종필의 역할연구 : 민족문화이념을 중심으로”라고 제목의 연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연구서는 민족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고 특히 1960~70년대 문화정책에 대한 연구과정에서 김종필 전 총리의 역할과 의미를 알아보려고 발간한 책입니다. 연구서의 서문에서 운정의 이력을 단지 정치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책의 서두에 “김종필은 그 시대의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문화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또 문화예술인들과 가까웠으며 나아가 자신의 문화예술적 감상과 소양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구서는 운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이미 5·16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안익태 등이 동원된 당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음악제를 주도 했으며 민족기록화사업, 애국조상건립사업 등과 같은 우리나라 미술계에서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문화정책을 주도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그린 악단 창단 및 운영 같은 우리나라 공연예술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사업



김진봉
(재)운정재단 이사장

도 윤정 선생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 같은 인물의 국가적 상징화 사업에도 깊이 관여되어 있고 5·16민족상을 제정하거나 예충을 창립하는 등 많은 관련성과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윤정지는 2호에서 「군」과 「안보」, 3호부터 지난 7호까지 「외교」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사진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군, 안보, 외교에 이어 이번 호부터는 「문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미술, 조각, 건축을 다룹니다. 내년에 발간되는 9호 봄호부터는 「스포츠」편으로 특히 「골프」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며 이어 「음악」 「글」 「글씨」 「바둑」 등 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소장하고 있는 사료들을 최대한 집대성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수집 가능한 모든 자료들을 최대한 모으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내용과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을 소장하고 계시거나 관련 사실들을 알고 계시면 저희 재단 관계자에게 제보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면 윤정 선생의 족적, 발자취를 기록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윤정지는 윤정 선생의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하는데 초보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정보전달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윤정’지 발송은 최대한 줄일 예정입니다. 이점 후원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여러 독자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雲庭

2017년 12월 31일 김진봉